

정신건강
의학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FINAL
REPORT

...

2016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FINAL REPORT 2016

CONTENTS

인사말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소개	04
성평등 문화 정착	06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08
언니네트워크	09
일다	10
창원YWCA	11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2
한국여성민우회	13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운동 활성화	14
구로여성회	16
여성환경연대	17
조각보	18
한국여성단체연합	19
행복누리	20
문화기획달	21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22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3
여성의 노동권 향상 및 정치세력화	24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26
한국여성노동자회	27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	28
서울동북여성민우회	30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31
한국성폭력상담소	3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3

우리 사회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원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 국민을 절망과 비탄에 빠트린 많은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드러낸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여 이제는 역차별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는 존재입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보다 평균 40%가 낮으며,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증가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특정 성별을 골라 저지르는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차별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훌륭한 정치적 방식으로 여성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모 칼럼니스트의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SNS에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해시태그 선언 운동을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했던 많은 폭력들과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점에는 다시 페미니즘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2030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언어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여성단체의 사업들은 한국 여성운동의 발자취와 성장의 기록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한국 여성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자부합니다.

2016년에도 여성재단은 변함없이 우리 사회 주요한 여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책자에 실린 20개의 사업은 한국 사회 여성의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지원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금은 100인 기부 릴레이라는 여성재단 대표 개인모금캠페인을 통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5,000여 명의 개인기부자들이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우리 사회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4년간 많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듯이, 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재단 활동에 기부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지금과 같이 관심과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성평등 문화 정착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26,000,000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24,000,000
	일다	20, 30대 여성들의 '차별 드러내기'	8,000,000
	창원YWCA	Y-Feel-통(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생각과 행동이 소통되는 지역사회만들기)	13,000,00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Pride. Connected : 동등한 권리	20,000,000
	한국여성민우회	외모 피로사회 - 사진 없는 이력서로 시작되는 변화	17,000,000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운동 활성화	구로여성회	성평등한 구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15,000,000
	여성환경연대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까' : 생존·자립·연대를 꿈꾸는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포럼	12,900,000
	조각보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아만디아스포라여성들의 말하기대회	6,0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17,000,000
여성의 노동권 향상 및 정치세력화	행복누리	여성주의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인권의 날개로 평등을	5,565,00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용 플랫폼 구축 사업 - '성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16,000,000
	한국여성노동자회 ★	젠더 관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방향 찾기	18,000,000

한 눈에 보는
2016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20개 단체
총 243,465,000원
지원

198,465,000원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

30,000,000원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15,000,000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지역 아동·청소년의 담당하고 안전한 즐거운 성!	8,000,000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께!”(II)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성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 심화프로그램	6,000,000
	한국성폭력상담소 ★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관리워킹>	6,000,00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양성프로그램	10,000,00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운동 활성화	문화기획달 ★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5,000,000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새로운 반의 시작	5,000,000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우리는 혼자	5,000,000

★는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사 및 이미지 출처 : 뉴스스,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이투데이, 네이버포스트>

여성혐오, ‘여자’라 살해 당했다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원인은 ‘여성혐오’? ... 여자라서 죽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 살해 이유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문지마 범죄’로 결론

17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살해됐다. 살해 용의자 김 모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라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김 씨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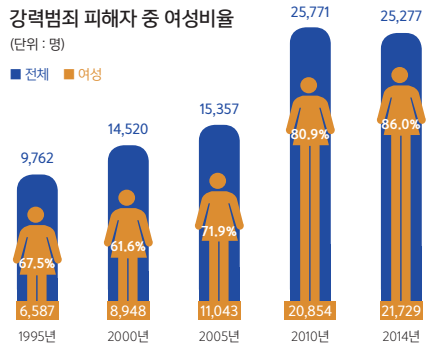
‘남자’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 있나요?

강력범죄 가해자 10명 중 9.8명이 남자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자

- 엘리베이터에 탄 모르는 여성을 단지 화풀이 차원에서 폭행
- 골목길을 걷던 여성을 이유 없이 구타
- 모두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골라 범행했다고 진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단위: 명)

■ 전체 ■ 여성



여성혐오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넌 얼굴이 무기야’, ‘여자랑 일하기 싫어’, ‘여자치고 잘하는데’ 등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에 대한 무시와 멸시, 편견, 차별, 폭력이 만연한 우리사회 여성 차별을 넘어 여성 비하, 이제는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로 드러남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 문화 정착

한국여성재단은,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다움’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총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 언니네트워크
- 20, 30대 여성들의 ‘차별 드러내기’ | 일다
- Y-Feel-通 | 창원YWCA
- Pride. Connected : 동등한 권리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외모 피로사회 - 사진 없는 이력서로 시작되는 변화 | 한국여성민우회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페미 3.0>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성주의 미술이 지닐 수 있는, 진화하고 있는 특성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엄마와 딸의 유대관계,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사회적인 고정 관념들과 시선들 등 다양한 이슈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심포지엄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여성주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작가들, 관객들과 공유하였다. 강력한 칼보다는 유연하고 강인함으로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행사는 앞으로 여성주의 미술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통하여 여성주의 미술이 사회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김태현 아이공 연구원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669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페미니즘 비엔날레 ‘페미 3.0’

여성은 자유롭게 자신을 예술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OPEN CALL”
 - 매달 오픈콜 작가 선정 및 작품 전시(12명 작가의 작품 24점 선정, 총 300여명 관람)
 - 아티스트 토크 및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관객과 작가와의 만남 진행
-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전시 및 상영
 - 10월 중 13일간 진행, 작가 25명 참여, 총 1,700명 관람
- 페미니즘 미디어아트에의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대담 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GT 개최(총 10회, 총 600명 참여)



페미 1.0

회화, 조각, 사진, 퍼포먼스, 길거리투쟁 등으로 여성주의를 공동체 예술로 표현



페미 2.0

DV영상, 설치, 사운드, 블로그, 로컬커뮤니티아트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



페미 3.0

HD영상, 네트워크, 빅데이터, SNS, 스마트폰을 통해 초단위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익명의 누군가와 소통을 시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다

- 페미 1.0, 2.0, 3.0이 가진 여성감수성을 모두 아우르는 전시 및 상영
- 국내외 포스트 디지털 여성주의 작품과 대중과의 만남
 - 창작가와 관객의 만남, 이론가/전문가들과 관객의 만남, 창작가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이를 통해 여성주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 확장 (창작가 47명, 관객 2,540명 참여)
- 주제적인 여성주의 작가 문화 확산
 - 시각미술 분야에 여성주의 작가로서의 자긍심 및 젠더감수성 향상, 여성주의 포스트 디지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활동 지원

여성주의 액션 매거진 <언니네>

보통(어디까지나 사전적으로)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느껴질법한 매거진일수도 있지만 어딘가 치우치지 않게, 하지만 적나라하게 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 「팸」 독자 후기 중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617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곳이 필요하다



창간호

비밀스러운 벽장을 까발린 죄와 벌
L커뮤니티야 어딴니? 내 목소리 들리니?
L커뮤니티 레인보우 타임라인
불안, 문만 잠그면 안전합니까?
그날 : 퀴어함이 보내,은신호

- 매거진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총 11명 구성, 워크숍 및 기획회의 총 20회 진행
-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팸」 발간 및 배포
 - 총 2회 발간, 총 2,400부 배포
 - 온·오프라인 배포 : 전국 30여 곳의 여성주의공간, 독립출판서점을 통해 배포
- 여성주의 문화를 즐기다, 창간기념 액션파티
<아무나 못 오는 창간Party> 개최
 - 참석자 175명에게 여성주의 액션에 참여할 기회 제공



2호

여/성혐오
강남역과 올렌드 사이
화장실 전쟁
미러링의 역사
나는 종충이었다

여성을 규정하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다,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팸」

-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20~30대 여성들을 발굴, 여성주의 문화생산자로 양성
-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잡지, 「팸」
 - 다양한 나이, 지역,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등 기존 매체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 및 성소수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왜곡 없이 담은 매체 발간
 - 서울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약 30여 곳의 거점배포처 제휴를 통해 배포
- 새로운 여성주의를 상상하고 연대하는 장 마련
 -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주의 액션과 네트워크를, '매거진'을 매개로 전국으로 직접 찾아가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냄

20, 30대 여성들의 ‘차별 드러내기’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성장을 독려하며 지켜보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기쁜 일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에서도 소통할 수 없었던 ‘불안’과 ‘분노’에 대한 자신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 참여자들의 메시지가 운동의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개별화, 개인화되었다고 하지만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대를 꾀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모임이 만들어진 사례들을 피드백 받은 것이 뿌듯하였습니다.

- 김지현 일다 대표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레이어를 통해 약 **20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여자’로 산다는 것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소리(언어)로 이야기하다

- 2030대 여성 20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차별 실태를 드러내는 기록 20편 작성
- 기록물 <일다> 내 연재 및 기사화
- 기록물 영문번역본 <일다> 영문블로그 게재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듣다

■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담론 생성

- ○○녀 시리즈와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젊은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
: ‘김치녀’이거나 ‘개념녀’이거나 |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 석사학위보다 무거운 내 11kg
- 법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 노동현장에서 겪는 성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추가노동’이다
- 성희롱, 성추행은 곳곳에 만연하고 대학 사회도 성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여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당하는 괴롭힘 | 대학원 면접, ‘갑질’로 얼룩진 5분
- 이전에 사소하다고 얘기되는 차별이나 언어폭력, 혐오를 담은 발언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다
: ‘넌 너무 예민해’ 예민해져야 하지 않나요? | ‘여자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당하는 괴롭힘

■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한국사회 평등 지수 공헌화

- 기록물 연재 및 영문 사이트 게재를 통해 동세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여성들에게도 공유
- 기록물 참여한 남순아 다큐멘터리 감독(영화감독이 아닌 ‘어린 여성’으로 불릴 때) 영화판의 성희롱 실태를 알리고, 참여한 장편영화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안해 실시 이후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 결성에 영향, 다른 영화 프로덕션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

Y-Feel-通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생각과 행동이 소통되는 지역사회만들기

‘Y-Feel-通’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요즘의 대학생들의 관심은 스펙과 취업에 집중되어져 있어 1년 간의 ‘Y-Feel-通’ 활동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과의 협력으로 올 한 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며, 소수이지만 대학청년동아리가 결성되어 내년 한해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 김재희 창원YWCA 부장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rule레이를 통해 약 **334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은 남성의 입장은 무시하고 여성의 입장만 대변한다, 56.5%

※ 2015년 대학생 대상 성평등지수 조사결과(창원YWCA)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 115위(세계 성격차보고서 2015)
대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 Y-Feel-通 대학생 기획단 모집 및 구성(5명)
- 대학생 교육 ‘양성평등과 미디어’ 진행(3회, 총 76명 참여)
- 대학생 성인지력 설문조사(1,000부 배포, 677부 회수) 진행 및 결과 분석
- 양성평등캠퍼스 조성을 위한 ‘He for She’ 캠페인 진행 (창원시 소재 4개 대학, 1,200명 참여)
- 활동 결과를 나누는 이그나이트 ‘성평등을 외치다’ 진행(창원시 소재 3개 대학, 269명 참여)



청년지도력 성장을 통한 대학Y 설립

- 창원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현주소 파악

나는 평소 학교 내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 간에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학생 13.36 여학생 14.13



전체 평균 14.02(SD=3.36)

47.9% 전혀 또는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
38.7% 보통이다

학교의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66.8% 대체로 평등하다
27.9% 전혀 또는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

- 대학 캠퍼스 내 양성평등 문화 및 공감대 확산
-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중 7명 창원YWCA 대학Y 활동가로 육성, 2017년 활동 예정

Pride. Connected : 동등한 권리

스포츠를 등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집단에서 차별받고 배제되기 일췌인 사람들은 단체 스포츠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숨긴 채 경기에 참여하고, 동료들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괴로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자신의 성적체성에 상관없이, 스포츠가 주는 감동과 경험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누리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프라이드하우스가 이러한 바람을 실현시킬 공간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 Equal Ground 참가자 후기 중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514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누구나 평등해야 하니까요

프라이드하우스란? (PRIDE HOUSE)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프라이드하우스, 국제스포츠 행사기간동안 LGBTAIQ(성적소수자) 선수 및 코치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를 환영하는 문화공간 전시회, 토론회, 파티, 단체 경기 관람 등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고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

2018년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프라이드하우스 개최를 위한 준비

- 프라이드하우스 준비위원회 구성(8명) 및 운영(자문 9회, 회의 매월 4회, 워크숍 1회)
- 스포츠 내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 프라이드하우스 설명회 개최(2회) 및 홍보물 제작(로그, 리플렛, 기념품, 영상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전용 계정 개설
 - 관련 국내외 뉴스·영상 번역 및 칼럼 기획 등으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총 97회)
- 프라이드하우스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내외 관련 단체 미팅 및 행사 참석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기 Equal Ground 개최(1회, 50명 참여)

‘2018 PRIDE HOUSE PYEONG CHANG’ 개최를 위하여

-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프라이드하우스(PRIDE HOUSE)’ 개념 확산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발신(총 97회)으로 약 30만 명에게 노출
 - 공개설명회 개최, LGBTI인권포럼 및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추산 1만여 명의 개인 및 단체들에게 프라이드하우스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림
- 남성 중심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스포츠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논의의 장 형성
- 프라이드하우스 개최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
 - 대구, 광주, 전주, 부산 등 성적소수자/여성단체와의 네트워킹
 - 2020년 도쿄올림픽 프라이드하우스 준비팀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교류 예정



외모 피로사회

- 사진 없는 이력서로 시작되는 변화

“립.스틱.좀발라.”, “화장은 예의 아니야?”, “치마 좀 입고 다녀.”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전단지를 보고, 또 피켓 문구들을 보며 “이거 부장님 얘기잖아요?”, “아나, 나 사진 안 봐”, “사진 말고 다른 거 다 보잖아요.”라는 말들을 주고 받는 사람들을 만났다. 직장에서 외모평가를 많이 하는 누군가가 이 문구를 본다면, 직장에서 그런 발언을 듣고 있던 누군가 봤다면 점심식사 후 사무실에 돌아가 뜨끔할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 서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37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외모란, 스펙???

여전히 ‘용모단정’이란 기준으로 외모 평가·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에 균열을 낸다.

- 직장 내 안전한 복장규정 및 외모 평가·차별 발언 수집을 위한 집담회
<외모?왜?뭐?> 총 2회 개최
- 채용공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운영(총 13명 모집, 총 17회 진행)
- 외모 평가·차별 경험자 모집(11명),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집
<직장인에게 알맞은 복장은? : 없다. 없어도 된다> 발간(500부)
- 결과발표회 <얼굴로 일하는 거 아니잖수?> 개최(1회, 50명 참석), 거리액션활동 진행(2회)
- 기업/기관/단체 <사진 없는 이력서> 사용 릴레이 선언 제안(약 500여 곳) 및 조직
- 몸 다양성 보장에 대한 해외의 사례 및 정책에 대한 정책포럼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의.안.발.의> 개최(1회, 30명 참석)



이미지출처 : YTN

외모 평가·차별 사례



[모집·채용 공고 시] 외모조건을 자격조건으로 제시 “외모 우수한 서빙 구함”

[이력서 제출 시] 깔끔한 이력서 사진, 키, 몸무게까지 당당히 요구

[면접 시]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외모에 대한 세세한 평가 “피부관리는 안하냐?”

[직장 근무 시] 끊임없이 요구되는 외모 관리 “여자가 게을러서 화장도 안하고”, “외모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던데...”, “이 제야 여직원인 느낌이 난다”

얼굴로 일하는 것 아니잖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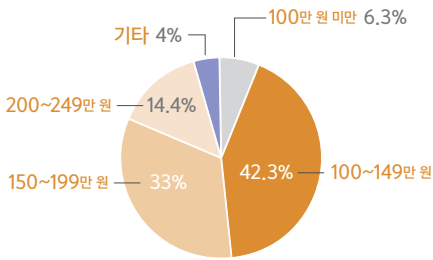
- 외모 평가·차별에 대한 사례·발언 수집 및 유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 및 확산 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임을 확인
 - 프리랜서 강사,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기업 남초회사, 중소기업 여초회사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 마련
- 외모 평가·차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생산
 - 정책 제안 :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에 외모차별적 채용공고 내용(총 136건) 및 대책 마련 요구서 제출
 - 카드뉴스 제작 :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 카드뉴스 <여성성을 위한 직장생활 가이드북?>
 - 영상(3편) 제작 : <직장인 공포특집 : 평범한 회사>, <외모평가, 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겐 도구가 있다 : 마네킹편, 포인터편>
 - SNS : 페이스북 페이지 ‘외모 차별적 사례수집 창구’ 개설, SNS노출 총 20,913명(누적) 도달
- <사진 없는 이력서> 사용 릴레이 선언에 총 82개의 기관 참여를 통해 채용 문화와 직장 내에서의 복장규정, 외모 평가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

세상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시도의 주체, 여성운동 여성운동을 이끄는 주체, 여성활동가 그러나 현실은?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공공선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와 협력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NGO단체
그러나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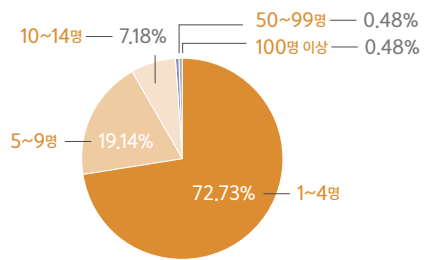
열악한 급여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 중
82%로 대다수 차지
(3인 가족 기준 2015년 최저생계비 2,039,532원)



매우 적은 상근자수

상근자가 5명 미만인 단체가 72.7%나 차지
1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매우 높음



(출처 : 뉴시스 2015.08.18. / 한국민간단체총람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이 이루어낸 너무나 많은 성과들

여성운동이 이끌어 낸 제도적 변화들

- 1994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모성 보호 강화
- 2002년 정당법 개정을 통한 여성할당제 강화
-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
- 2005년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운동 활성화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를 만드는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총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성평등한 구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 구로여성회
-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까’ : 생존·자립·연대를 꿈꾸는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포럼 | 여성환경연대
-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아안디아스포라여성들의 말하기대회 | 조각보
-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주의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인권의 날개로 평등을 | 행복누리
-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 문화기획달
- 새로운 반의 시작 |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 우리는 혼자지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성평등한 구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우리 마을은 평등하고 차별 없는 곳일까? 여성들은 마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역의 여성들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력을 갖고 있었고, 성평등에 대한 고민부터 조직의 발전,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드러났지만 나아가서 소통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응답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면 그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함께 힘을 얻을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동화 지역조사 참여 NGO활동가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레지를 통해 약 **38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궁금해! 구로지역 풀뿌리모임 30개, 300명을 만나보자!



- 기획단 구성 및 진행(5명 구성, 총 7회 진행)
- 조사 수행자 모집 및 교육(26명 모집, 2회 교육, 2회 세부회의, 1회 평가회의의 진행)
- 여성활동 집담회 개최(1회, 40명 참여)
- 지역조사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진행(35개 기관, 280명 욕구조사 진행)
- 자료집 '풀뿌리 여성모임을 찾아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30개 기관, 45명 참여)



구로여성네트워크가 필요해!

- 구로지역 최초로 풀뿌리 활동 여성모임 조사 진행
 - 대상 : 여성일반/생활협동조합, 도서관 및 교육, 마을/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마을도서관, 자원봉사캠프, 시민사회단체 등 30개 그룹
 - 조사결과
 - 거주자의 대부분 30~40대 유·초등 학부모 **83.2%**
 - 구로구 거주 기간 10년 이상 **46.0%**
 - 풀뿌리 활동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42.0%**
 - 활동가 대부분 비상근, 운영위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급인 경우 **70% 이상**
 - 활동 참여 형태 비상근 또는 운영위원·회원 등 **86.3%**
 - 풀뿌리 활동을 참여하게 된 계기
 - : 나의 성장과 발전 **32.0%**, 육아 및 자녀 교육 도움 **28.0%**
 - 지역 내 주요 여성이슈
 - : 일하는 여성지원 인프라 **25.0%**, 여성 일자리 창출 **20.0%**,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17.0%**
- 구로지역 <여성, 네트워크> 토대 구축
- 마을 내 첫 여성네트워크 구성 및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축
- 구로지역의 공동 사업주제 도출
 - 무급형 활동의 새로운 시선, 유희공간의 부재, 홍보기획/교육활동 공유 등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까

생존·자립·연대를 꿈꾸는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포럼

에코페미니즘학교 덕분에,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고 고민만 했던 것들이 좋은 강의와 멋진 토론 덕분에 저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 스스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참여하며 페미니스트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점점 확장되고 다른 공간을 만나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수정 에코페미니즘학교 참가자 후기 중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33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30세대에게 질문을 던지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 기획단 구성 및 운영(총 7회 진행)
-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모집 및 진행(50명 모집, 총 5회 진행)
-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개최(1회, 300여 명 참여)
- 여성환경포럼 '달과 나무' 진행(총 7회, 누적인원 243명 참여)

삶을 지속할 힘이 되어줄 대안, 에코페미니즘

-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통해 2030 청년세대들이 자신의 고민을 주체적으로 나누는 장 마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대안적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제 : 모성, 여성혐오, 돌봄, 생명공학기술, 도시에서의 자급
 - 참여자 만족도 : 매우 만족 또는 만족스러웠다 **92.9%**

"페미니즘 입문자로서 에코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어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더 넓게 사유하고 실천할 힘을 얻었다."
-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 인간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_ 임순례
 - 여성혐오 - 가장 오래된 문명&평화 - 가장 오래된 폭력 _ 정희진
 -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_ 최경숙
 -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착한 유통업자 _ 김가영
 -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_ 김소연(쏘아)
 -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_ 김현미
- 정기적 포럼을 통해 에코페미니즘, 젠더,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안사회 제시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들의 말하기대회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주민으로서 겪는 불합리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비공개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다 넓은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단체내부의 회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감사하게도 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조각보의 첫 말하기대회(Speak-out Conference)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매번 타자화되고 일반화되어 하나로 묶이는 이주동포여성이라는 그룹 내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다양한 개개인들이 존재한다 걸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사회에 이방인 또는 ‘그들’로 여겨지는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함께 공감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주었기를 바랍니다.

- 김윤정 조각보 반상근 간사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투레이어를 통해 약 154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국인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문화에서도 배제되는 사회적 소수자,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이주동포여성)

코리안디아스포라

한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자의적·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 일본,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만 명 정도가 현재 국내에 귀환 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70%는 여성이며, 어느 순간부터 3D 업종에서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군의 상징이 되었고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해 왔습니다.



- 말하기대회 기획단 구성 및 운영(총 2회)
- 말하기대회 신청자 모집 및 선정(총 7명 선정), 발표자 워크숍 진행(2회)
-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의 말하기대회 개최(1회, 총 100명 참여)
- 발표자 어록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알려져야 하는, 일곱개의 이야기

- 한국 사회에서 이주동포여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 마련
 -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 한국에서 이주여성으로 경험한 불리한 법제도와 직장, 가정에서 겪은 고충을 이야기
 - :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체류 | 체류, 이주, 그리고 영주
 - 고려인으로 겪는 정체성 혼란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이야기
 - : 노동여건, 언어의 한계 | 나의 정체성, 고향은 어디에 있는지
 - 탈북민으로서 한국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에 대하여 이야기
 - : 내가 가진 역량 | 남북 부부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정 | 남한에서의 직장 생활 적응기
- 이주동포여성들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들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공론화하는 계기 마련
 - 총 5곳 언론매체 보도
 - 말하기대회 어록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매체 내 게재를 통해 대중 확산 (<https://youtu.be/FmeBv151shU>)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7, 8월 조직유형별 FGI와 8월 분야별/사례 워크숍 때만 해도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지역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11월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획일적인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함께 읽고 여성운동가로서 이 변화된 시대에 누구와 무엇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를 토론하면서 마음의 결을 맞추는 과정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바로 '차이의 소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가 현실의 언어로 다가와 무릎을 치게 하는 것이 이런 경험이었으리라.

- 유일영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37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운동 30년 활동을 정리하다



- 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비전위원회, 비전소위, 기획회의, 비전작업, 여성연합 사무처비전논의, 비전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40여 차례 개최
- 조사 작업 및 사례(의견) 청취
 - 연합운동 지부 관계자, 지역단체 관계자, 전국단일 이슈조직 관계자, 서울·수도권 개별단체 관계자 등 유형별 FGI 진행(총 4차 진행, 18명 참여)
 - 전국 지역단체 전문가 간담회 진행(1회 진행, 9명 참여)
 - 페미니즘 실천을 위한 온라인 참여게시판 '디.마.페(디어 마이 페미니즘)' 오픈
- 비전 마련 분야별 워크숍 진행(30여 개 단체 리더 70여 명 참여)
- 비전보고서 <다시,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다.다.다> 발간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 30년, 새로운 여성운동을 꿈꾼다

- 지난 30여 년 동안의 운동방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단·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 등을 반영하여 여성운동의 확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과제를 마련하여 새로운 운동내용 구상의 기반을 마련



30년간의
여성운동
진단



지역별, 단체별 경험과
인식의 차이 공유
변화의 필요성 확인



공통의
여성운동
의제 발굴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공존하는 열린 연대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앞으로의 30년
여성운동 비전을
만들다

여성주의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인권의 날개로 평등을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긴밀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여, 여성인권활동이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닌 개인의 일상에서 여성으로서의 불편함이나 불평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활동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런 사례를 듣거나 직접 방문한 것이 여성주의 활동의 자발성을 키우는데 좋은 교육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지역에 대한 오래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지역의 모습과 지역의 문화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진 것은 더 성평등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게 되었다.

- 김윤희 행복누리 인권교육팀장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레이어를 통해 약 **14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 여성주의 활동 2년차 활동가 12명 모집
- 여성주의 의식 향상과 활동력 강화 프로그램 진행(10회)
- 여성주의 인권운동의 역사와 여성정책 교육 진행(5회)
- 지역 내 성평등사회 활동 참여 진행(8회)



여성주의 활동가로서의 ‘나’의 신념과 비전 찾기

- 지역 내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대상 온라인 및 대면 홍보 진행으로 다양한 기관 참여
 - 참여 기관(총 6개 기관)
 - : 행복누리, 목포여성안전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목원동마을활동가, MBC미디어센터, 목포대학교
- 전문적인 여성주의 활동가 12명 양성
 -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역량강화 및 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지역 내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
 - 목포시의회 방청(7회) 및 방청 결과 집담회 개최(1회)
 - : 지역 내 시민으로서 목포시의회 활동에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 인식
 - :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활동 계획
 - 여성폭력예방과 안전한 밤길 되찾기 캠페인 ‘달빛시위’(200여 명 참여)
 - : 지역 내 여성주의 인권활동의 필요성 인식
 - :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여성주의 인권활동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



※ 본 사업은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기획달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치지 말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 제목을 정할 때부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꺼려져서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라는 사업명을 따로 고안해내야 했던 작년 말에 비하면 1년 사이 마을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갖는 주민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당당히 ‘나는 페미니스트다’를 외치게 된 지금, 오히려 개운해졌습니다.

- 권명심 문화기획달 행동지기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129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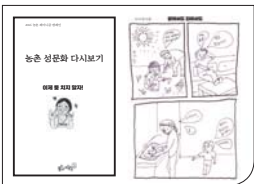
여자가 농촌에 살면 위험하다?

성희롱·성추행은 친밀함의 표시나 이웃기간에 할 수 있는 격의 없는 농담이 아닙니다

- 농촌 성문화 및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농촌거주 여성 44명 참여)
- 농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문화 및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경험 사례 공유 <토크파티> 개최(총 1회, 11명 참여)
-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자료집 발간(500부 배포/페이스북 페이지뷰 45,924명)
- <산내포럼 : 여성의 눈으로 산내 성문화 다시보기> 개최(1회, 총 40명 참여)



[자료집]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여전히 남녀유별, 남성상위

- 농촌거주 여성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의 성인지도, 성문화에 대한 실태 파악
- 가부장적 농촌문화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노동과 역할이 성평등 문화의 걸림돌임을 확인
 - 지역의 성문화가 불평등하다? 그렇다 84%, 아니다 16%
 - 지역의 성문화가 불평등한 첫 번째 이유는? 마을 행사나 활동에서의 성역할 구분 39%
 - 마을 활동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밥상을 차리고 시중을 드는 일이 거슬리지만 참고 한다 40%
 -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성들의 일거리가 많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26%
 - 남성의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 음담패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도 마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참고 지나가게 된다 23%
-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농촌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농촌 성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
 - 지역회의체에 여성과 남성이 동수로 운영위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제시
 - 마을행사 진행 시 행사 음식 준비에 남성 자원봉사자 모집
 - 성희롱·성추행 남성에게 직접 충고하여 사과를 받아냄 등
- 농촌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하고 불편한 성문화에 대하여 공론화
 - 농촌 여성들이 겪는 4가지 주제별(성희롱·성추행/1인 여성/남녀유별/조직문화) 에피소드를 담은 일러스트 책자 발간
 - 토크파티, 포럼 등을 통해 농촌 지역 내 여성과 남성의 갈등 표면화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새로운 반의 시작

2013년 인트리를 시작하면서 가장으로서 경제활동과 단체활동을 병행 하는 상황에서의 힘들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재정상황에서 여성재단의 신생여성단체 지원은 2016년 인트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 줄 수 있다는 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영리단체등록을 하고 난 후 정말 기쁘기도 했고 더 큰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최형숙 인트리 대표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린지를 통해 약 **129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혼모라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미혼모라서”...

구직 직장생활 불이익 차별 심각

여성신문 2016.01.27.

“면접을 보러 가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지, 야근이나 잔업이 가능한지, 야이 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물어봐요. 미혼모라고 밝히면 더는 질문이 없어요. 아, 또 탈락이구나...”

미혼모 25,000여 명 ...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고통으로 멎들어

일요서울 2016.12.31.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이렇게 냉대를 받을 줄 몰랐어요.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싸늘한 시선이 나중에 내 아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 미혼모 당사자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매월 정기운영진회의 진행(8회)
 - 운영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진행(3회)
 - 회원 대상 가족프로그램 진행(3회, 총 105명 참여)
 - 자립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위기지원사업 진행
 - 출산비,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24시간 상시 상담 지원
- 양육미혼모 자립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 미혼모 당사자 프로그램 '여성학강좌' 진행(6회)
 - 지역주민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초·중생 대상 성교육, 총 8회, 96명 참여)

미혼모도 아이 위해 열심히 사는 '엄마'입니다

- 회원이 단체의 운영위원 및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 당사자 활동가 양성
 - 단순 프로그램 참여자에서, 단체 운영위원으로 참여 또는 단체 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
 - 성교육강사로 활동, 방과 후 저소득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 활동가 인건비 및 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통한 활동 안정화
 - 단체 설립 2년 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회원수 전년대비 147.5% 증가

※ 본 사업은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한부모 가족지원 센터

우리는 한가지

2014년 7월, 10여 명의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어렵게 시작한 센터가 2년여 만에 200여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발한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여성재단의 신생여성단체 지원 덕분입니다. 9명으로 시작한 센터가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이 생겨 공간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삶에 센터가 기댈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2017년도 열심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 서민채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간사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129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린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엄마, 보통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월 소득 189만원, 일반가구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2016.03.22.

가장 큰 고민은 '양육비' ... 미취학 자녀·초등학교 중학생 이상 자녀 둔 한부모 모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한부모가정의 20% 우울증상 경험

뉴스천지 2016.06.17.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20% 가량은 우울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상을 '혼자서 참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회원 확대 및 회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 <1차년도> 100명 확보/<2차년도> 194명 확보
 - 한부모가족 기초상담원 양성, 부모교육 진행
- 한부모 당사자 활동가 양성
 - 전체회원모임, 여성자조모임, 남성한부모자조모임 운영
- 센터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상근자 2인 확보
 - 센터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나눔장터 및 후원주점 행사 진행(총 2회)
 - 비영리단체 등록 준비 완료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정
- <한가지 합창단> 운영 및 공연을 통한 단체 홍보 활동 진행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들에게 지표가 되길

- 2차년도에 걸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으로 센터 운영 안정 확보
 - 회원수 전년대비 94% 증가
 - 상근자 확보 및 활동비/센터운영비 지원을 통한 센터 활동 안정적 운영
- 인천지역 내 '유일'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로, 한부모 상담기관으로 자리매김

상담
건수

2015년 : 30~40건 에 그치던 한부모 상담

2016년 : 200여 건 으로 대폭 증가

-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초상담원 양성을 통해 34명 수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부모 당사자를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된 <한가지 합창단> 운영을 통해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이끌어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출처 :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의 대학 진학률
74.6%

대학 진학률 남성 67.3% vs 여성 74.6%



남녀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
+ 2시간 23분

가사노동시간 남성 42분 vs 여성 3시간 5분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의 4배 이상



여성 고용률(2015)
- 21.2

경제 활동 남성 71.1% vs 여성 49.9%



남성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 수준
- 100만원

임금 수준 남성 2,837,000원 vs 여성 1,781,000원



공직 내 여성 공무원 비율(2014)
- 56.1%

사회적 지위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중 여성 관리자 비율 9.7%



OECD 평균 대비
한국 국회의원 여성 비율
- 11.5%

정치적 권한 제20대 국회의원 여성비율 17%
OECD회원국 평균 28.5%에 못미침

단지 '여자'라서... 더 나은 여성의 삶은 아직도 멀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7.02.21. / 머니투데이 2017.02.27. / 서울신문 2017.02.21. / 중앙일보 2017.01.29. / KBS 2016.02.23)

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경단녀' 경력단절 선택의 이유

결혼 40.4%

임신/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 양육 6.9%

취학 자녀 양육 1.5%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8.4년
그러나 임시직, 시간제 근무가 대부분

상용 근로자 감소 81.7%

경력단절 이전 45.4%

임시 근로자 증가 10.4%

경력단절 이후 24.5%

자영업자 증가 5.1%

경력단절 이전 15.2%

전업맘도, 워킹맘도 '가사+독박육아'는 아내 몫

맞벌이 아내의 자녀 양육 시간, 남편의 2.6배
남성의 49.4% 식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의 노동권 향상 및 정치세력화

한국여성재단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알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총 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원 플랫폼 구축 사업
- '성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 젠더 관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방향 찾기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 응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성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사실상 성주류화 용어를 들어보기만 했지 실질적인 정책도구 활용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익숙해지지 못한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접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재정적 여건이 녹록치 않고, 인적 자원이 충분히 충원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운동영역으로서 성인지적 정책도구 활용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성인지넷 활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성평등 운동 기술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덕자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회원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레이어를 통해 약 411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

Gender Mainstreaming?

Gender mainstreaming, by definition, involves integrating a gender perspective and gender analysis into all stages of desig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rojects, policies and programmes.

(Gender Mainstreaming in Practice: A HANDBOOK)

- NGO의 정책 모니터링 활동 현황 및 욕구조사(357개 단체 대상 조사 진행)
- 젠더정책 모니터링 전문가 교육 과정 개발 및 진행
(중부/남부 2개 권역, 총 4회 진행, 총 42명 NGO활동가 참여)
- 젠더정책 모니터링 분석 및 실습(중부/남부 지역 7개 단체, 총 53명 참여)
- 젠더정책 NGO모니터링 심포지엄 “성주류화, 경계는 없다”
(전국 6개 지역 젠더정책 모니터링 활동 사례 결과 보고)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NGO와 GO의 경계를 낮추다

-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의 정책 모니터링 역량 강화
 - 중부·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 지역단체의 정책 모니터링 경험 축적 및 지역 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구체화
- 개별화되어 있는 여성단체의 정책 개입활동 경험 수집 및 발표
 - [관악여성회] 관악구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점검
 - [풀뿌리여성연대, 김해여성회]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점검
 -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광역시도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양성평등정책 평가
 - [대전여성단체연합] 청년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

젠더 관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방향 찾기

사업 준비를 하면서 관련 단체 활동가들에게 사업에 대한 소개와 기획 의도를 전달하자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격하게(?) 동감을 표시하며 함께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활동 속에서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다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반응이었다니... 활동가에게 신념과 열정뿐 아니라 문제의식을 나누며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료가 있다는 든든함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챌레지를 통해 약 **46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 = 저임금노동력?



- 젠더 관점의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 기획을 위한 연대 워크숍 '최저임금과 젠더, 그리고 사회정의' 개최(1회, 현장참여 32명, 페이스북 생중계 참여 501명)
- 젠더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포럼 '월급봉투가 묻는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 개최 (총 4회, 111명 참여)
-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실태 파악 '내 임금을 좀먹는 꼼수를 찾아라' 진행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933명 참여
 - 조사 결과 토론회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버움, 여성임금' 진행(1회, 35명 참여)
- 최저임금 현실화 홍보용 노래 '올려라! 최저임금' 제작 및 음원 배포(다운로드 3,188건)

최저임금 1만원,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 대학 졸업한 응답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최저임금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5명 중 2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참으며' 일을 지속하고 있음
 - 참은 이유는? '다들 그렇게 받고 있어서', '해고 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워서' 등
 - 현재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부채상환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연대 및 공론화
 -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연대 구성
 - 최저임금 현실화 홍보용 노래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하여 대중과 문화적 소통력을 높임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 최저임금 대안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여성에 대한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은 ‘사랑하니까’ 무죄?
남편의 스토킹 행위는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
남편의 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 집안일?

MBN

(출처 : MBN뉴스 2015.03.07.)

여성 살해범의 77%는 남편·애인

2014년에만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 114명

아주경제

(출처 : 아주경제 2016.09.14.)

2015년 하루 평균 130명 넘게 가정폭력으로 검거

5년 만에 6배 폭증

여성신문

(출처 : 여성신문 2017.02.16.)

일하는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직장내 성희롱 79%

성희롱,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직장인 78.4%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THE HUFFINGTON POST
KOREA

(출처 : 허핑턴포스트 2017.01.23.)

성폭력 당했는데 오히려 징역 2년 ...

‘고소女’, ‘성매매女’에서 급기야 ‘무고女’, ‘협력女’로 둔갑하여
뉴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2016년, 연이어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도들이 대서특필됐다. 피고소인인 남성 유명 연예인들과 소속사 측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며 무고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17일, 유명 연예인 박 00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징역 2년이라는 믿기 어려운 중형을 선고했다.

OhmyNews (출처 : 오마이뉴스 2016.11.22.)

강간 피해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다니 ...



내가 추행을 당한 장면이 분명하게 CCTV에 나와 있었지만 무혐의로 불기소됐다. 추행을 당하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 장면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단순한 싸움으로 보이는가? 가해자는 나를 명예 훼손으로 억고소했다. 정말 죽고 싶다.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

※ 본 사업은 2015년 한국여성재단 SOS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총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역 아동·청소년의 **당당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게!”(II)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성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 심화프로그램** |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관례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양성프로그램**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역 아동·청소년의 당당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몸, 월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경은 무슨 색깔까요?'라는 나의 질문에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5학년 여자친구가 '하늘색이요.'라고 대답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의 경우 아직 월경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상상 속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남자친구들의 경우 월경을 하늘색이라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등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김은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평등교육팀 운영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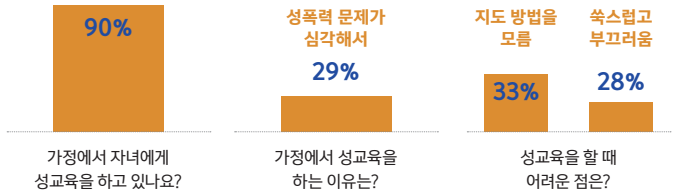
성(性), 부끄럽고 불편한 것?



초등생 학부모 "성교육 하고 있지만, 방법 모르고 쑥스럽다"

(출처 : 머니S 2015.09.24.)

성교육 하고 있거나 한 적 있다



- 연령에 맞는 성교육 교재 연구 및 제작
- 강사단 구성(10명) 및 운영(워크숍 1회, 활동계획 논의 및 점검·평가 회의 8회)
- 도봉구 소재 내 지역아동센터 6곳 선정 및 강사와 지역아동센터 1:1 멘토 맺기
- 지역아동센터별 성평등 교육 진행(6곳, 10회기 씩 총 60회기 진행)
- 아동·청소년들이 '성'을 주제로 한 소통의 장, 성장(性張)캠프 개최(1회, 32명 참여)

반갑다, 사춘기야!

- 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가?
 - 19세 이상 이용 가능 매체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6학년임
- 왜 지역아동센터인가?
 - 부모의 밀착 돌봄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음란물 노출이 쉬움
 - 전문적 영역인 '성(性)'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호소
- 지식전달식의 성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성에 대한 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진행
- 아동·청소년 돌봄기관과 성교육전문그룹의 네트워크 구축
 - 기관과 성교육전문가의 1:1 연결로 성문제에 대한 빠르고 일상적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 지역에서 '성' 분야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 위기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짐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게!(II)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성의식 향상을 위한 상담 심화 프로그램

성교육은 늘 할 때 마다 어떻게 전달해야 잘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좀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이 시간들이 언젠가 열매가 되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결과가 보여지겠지요.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매우 좋아하고 작년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진 탓에 올해는 자기 마음속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으며 스스로 치유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다루지 못하는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정애경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운영팀장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80%가 '지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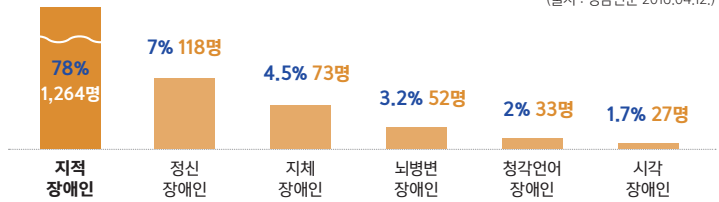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성범죄 느는데 대책은 안 보여

한국일보 2016.05.02.

지적장애 2급인 A(19)군은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8세 여아의 상반신을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서로 끌려 온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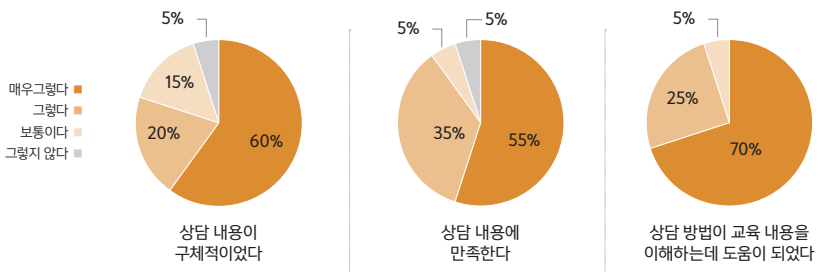
(출처 : 경남신문 2016.04.12.)



- 의왕시 및 경기동남부 지역 내 42개 기관에 사업 홍보
- 교육 참여 기관 모집(총 7개 기관)
- 교육 참여자 모집(아동 및 청소년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총 48명 모집)
- 기관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기관별 3회기 씩 총 21회기 진행)

성폭력 피해자 또는 의도치 않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 2015~2016년 연속사업으로 전년도 사업평가 및 참여 기관별 요청에 따라 심화교육과정 마련 및 진행
 - 장애 특성별/눈높이에 맞는 체험식 성교육 프로그램 및 1:1 개별 상담 진행
 - 성 표현과 성 행동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
 -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유형을 교육
- 사업 참여자 및 시설 담당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85% 이상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성폭력판례뒤집기> 사업은 제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성폭력생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판례 모니터링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한 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아! 이 판결 평석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판결들이 생존자의 입장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네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보는 무수한 사례들은 <성폭력판례뒤집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나는 '꽃뱀'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2013년 친고죄 폐지 후 검찰의 무고 인지 증가, 사법기관의 젠더의식이 필요하다

- 활동가와 예비법조인으로 기획단 구성 및 운영(총 7명, 11회 진행)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모의법정 개최(1회, 총 108명 참여)
- 성폭력 주요 판례 분석 좌담회(1회, 총 35명 참여) 및 대중적 토론회 개최(1회, 총 50명 참여)
- 여성주의적 판례 분석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판례뒤집기> 제작
실제 수사·사법 관련 종사자, 예비법조인, 일반시민 등 배포(총 312곳 발송)



'피해자'의 시각으로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다

- 2015~2016년 성폭력 사건 주요 쟁점을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
판결의 오류를 확인하고 '여성' 및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계기 시도

중간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등

2015년

의제강간, 균형법상 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2016년

- 실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한 모의법정 개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및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결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젠더 관점을 반영한 판결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총 7곳 언론매체 보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입은 10대 청소년 성폭력 사건

1,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피해자의 메시지와 편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연인'으로 인정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
청소년 피해자가 가진 취약성,
특수성을 감안해 가해자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정

모의법정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이주여성 성폭력상담원 양성프로그램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강사는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언어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법률지원사례, 상담사례, 이주여성 지원사례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평등을 경험하고 성폭력 상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를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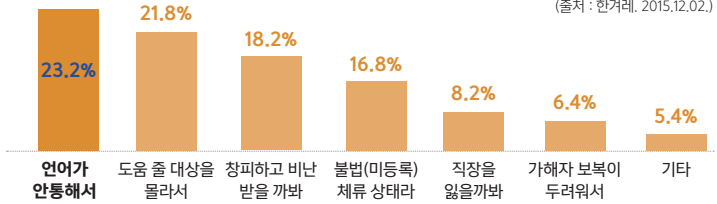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팀장 -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리고 싶어도 언어가 안 통해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발생 시 도움 요청 못한 이유

(출처 : 한겨레, 2015.12.02.)



- 대상자 모집 총 50명
 -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2명, [대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38명
-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진행
 - 지역별 각각 총 13회, 38차 강의 진행
- 교육 참여자 50명 중 총 47명 수료

‘말(언어)’이 통하는 성폭력상담

-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역할은?
 - 통역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침
 -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서 활동하고 싶어도 교육과정은 주로 선주민(한국인)에 국한됨
-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원 양성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임
 - 단순 통역 및 상담이 아닌,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상담의 전문적 지식, 이주여성 인권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 진행 가능
- 전국에서 단 2곳, 유일한 전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 인가 받은 이주여성 현장 단체로서 전문성 확보
 - 이주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역할 모델 창출
 - 향후 이주여성 인권활동가로 양성하여 통역/상담 지원 등을 통해 이주여성 지원 계획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 여성폭력 예방, 인권증진 사업
- 사회 전 분야의 여성리더 발굴, 육성 사업
- 성차별적 관행, 문화 개선 사업 등



**여성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여성활동가 심·재충전 지원
- 여성NGO활동 장학사업
- 여성 이용 및 생활시설, 여성단체 공간문화개선사업
- 여성활동가 의료비 지원



**소외계층여성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및 자녀의 의료비 지원
- 양육미혼모 및 자녀의 자립과 복지 향상 사업
- 다문화여성 창업 지원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 해외아동 교육권 향상 지원



100인 기부릴레이!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5년째 진행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 캠페인입니다.
100인 기부릴레이로 조성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은 우리 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씩씩하게 일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조성된 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2016년 100인 기부릴레이 기금 지원 결과 - 5개 부문/22개 사업 지원



성평등문화확산

108,000천원
9,765명



인권증진/평화사회구축

48,000천원
11,985명



여성친화정책

16,000천원
200명



여성운동활성화

52,565천원
5,815명



여성역량강화

18,900천원
350명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전화 02-336-6463 팩스 02-336-6459 이메일 womenfund@womenfund.or.kr

후원계좌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캠페인기간 4월 1일~4월 30일(한달)>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FINAL REPORT 2016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E-mail womenfund@womenfund.or.kr

www.womenfund.or.kr